

“수행 신도교육 전법 강화해야”

조계종 ‘종단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설문

조계종 총무원이 종단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발간 설문 결과의 ‘수행력이 담보되지 않고는 불교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는 결론을 보였다.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구조 속에서 불교는 여전히 수행을 통해 종교적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 준 셈이다.

현재 조계종단의 사회적 영향력이 낮은 편이었는데 68.1%의 답이 물린 것과 5년후의 위상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30%라는 점은 불교계가 상당한 자정과 분발심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실감을 그대로 투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0년후의 위상에 대해 48.8%의 응답자가 밝은 전망을 하고 있고 20년 후의 위상에 대해서는 62.9%가 희망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도의 수적 증가를 예견하는 데서도 이런 희망은 잘 드러났다. 10년후의 증가추세에 대해 밝게 전망한 응답자는 43.4%인 반면 30.9%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내다 봤다. 20년 후에는 49.3%가 증가를, 19.2%가 감소를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불교의 원동력에 대한 의견은 복수응답의 결과 수행력(66.3%)과 사회적 역할(56.3%) 교리체계(26.7%) 법력(2.6%)의 순을 보였다. 이를 압축하면 수행을 통한 사회참여가 불교의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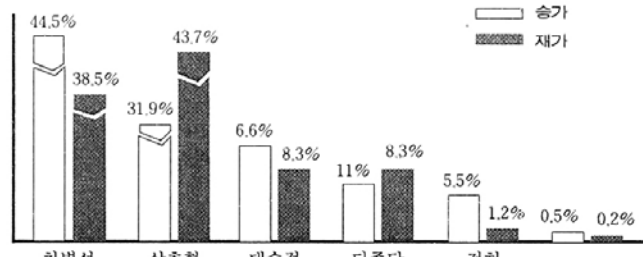
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 실천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대승불교 전통의 계승 발전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저해요인으로 꼽힌 종단의 분규(57.6%) 문중이거주의(55.6%) 스님들의 인식태도(47.2%) 정치권력의 예속화(24.4%) 등은 승가와 재가가 고르게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어서 범종단적인 ‘부중수교’의 합심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신행의 형태에 대해서는 참선수행(12.1%) 교리공부(12.8%)에 비해 사회봉사(32.2%) 법회참석(20.3%)의 분포를 보여 참여불교에 대한 지반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 신도교육이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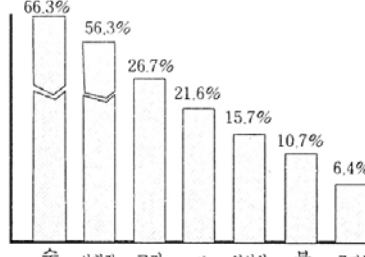
지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한 답이 57.5%를 보여 사찰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신도들의 제적사할 갖기 운동에 대한 반응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60.9%)와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37.1%) 큰 차이를 보였다. 조계종단의 스님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분야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10년후 불교위상 희망적” 49%
“종단 사회적 영향력 낮은편” 68%

◇조계종과 타종단의 바람직한 관계



◇한국불교 발전 원동력



올 가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국에 나부셨다고 가정해보자.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부처님을 친견하려고 야단일 것이다. 아마 나라안 이 떠들썩 할지도 모른다.

물론 있을 수 없는 상상이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수보리존자와 대화하시는 녹음테이프가 시중에 나돈다면 어떨까. 아마 불타나게 팔릴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개신 부처님의 형상과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없지만 설사 계산해도 부처님을 모듬으로만 보려해서

목어

부처님 뵈고프면

안개신 부처님의 형상과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없지만 설사 계산해도 부처님을 모듬으로만 보려해서

는 안된다고 부처님은 일러주셨다.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려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하면 이 사람은 곧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 <금강경> 사구계의 하나다.

부처님께서서는 해결사였다. 중생의 고민과 번뇌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때 그때 풀어주셨다. 자비로운 음성, 쉬운말로 일깨워주시는 가르침이 팔만대장경안에 오롯이 정리돼 있는 8만4천법문 아닌가. 우리는 마음만 내면 수시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 부처님 친견을 원한다면 먼저 책방으로 가지. 가서 경서를 구해 읽자. 거룩하신 부처님, 인간적인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수보리도 되고, 옥아녀도 되어, 부처님과 무언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어렵지않게 부처님을 친견하고 대화까지 나눌 수 있는데 불자들은 왜 그 길을 외면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가운데 절반은 한달 평균 1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권이상의 책을 사는 사람은 29%로 조사됐다. 불자들은 이보다 더 책을 안

읽고 안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책의 날’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매월 첫째 토요일을 ‘가족과 함께 책가는 날’로 선포했다. 불교계도 가정, 절, 수행단체에서 이 캠페인에 동참하길 바란다.

특히 스님들이 앞장서주시면 좋겠다.

정기법회를 마치고 단체로 책방가는날을 정하거나, 법회전후에 독후감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부처님 친견법회가 확산 될 것이다.

응답자의 38.3%는 수행을 40.1%는 전법 활동을 들었다. 수행과 전법의 문제는 ‘하나이면서 풀’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응답으로 분석할 수 있다.

94년 개혁회의 출범 이후 종단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51.7%의 응답자가 부분적인 성과를 인정했으며 28.5%는 과거와 별 다를바 없다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교양프로그램운영(23.1%)등의 순으로 답한 대목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스님들의 노후복지에 대한 의견은 요양소나 양로원설립에 절반 이상이 호감을 보였고(57%) 열반당이나 열불당의 설치 필요하다는 응답은 22.8%였다. 연금이나 보험금의 지급을 바라는 응답자는 18.6%에 그쳐 금전적 지원에 대한 필

수요 인터뷰

“청년불자 신행단합에 역점”

대불청 19대 중앙회장 당선 이상대 씨

대한불교청년회 제19대 중앙회장 선거가 19일 열려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이상대(42)가 총 2백4표 중 1백24표를 얻어 당선됐다. 98년 1월1일부터 3년동안 대불청을 책임지게 된다.

이상대씨는 20여년전부터 부산 보리(대각)불교청년회 회장, 정도구원 부산불교협회 부의장, 대불청 중앙부회장·국제위원장, 부산 공명선거실천협의회 집행위원, 천리안 보살중호회 초대 이사 등을 두루 거치면서 왕성한 불교활동을 펼쳐왔다. 또 95년도에는 대불청 불청대상을 수상, 불교계의 일꾼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쁘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도약하는 대불청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 그동안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대의원 모두가 불청의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그런 욕구와 저의 출마의 변이 일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 의견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역점투실 추진사업은 무엇입니까. ▲우선 (가칭)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오랜 숙원이었던 불청 법인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자립과 사회적 위상을 강화할 방침

설문조사 주관 총무원기획실장 지홍스님

“분석내용 정책입안 심분활용”



“종단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를 위해 실시한 이번 설문은 응답자가 종단내의 중요 활동가들이란 점과 연령별 분포가 고르다는 점에서 상당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문의 결과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만족스러우며 특히 현재 종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낱낱이 지적됐다는 점에서 정책 입안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설문을 주도한 조계종 기획실장 지홍스님은 설문분석이 종단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을 힘주어 말했다. 특히 스님은 수행과 전법의 중요성이 다양한 응답을 통해 확인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로의 정책 기조도 이 부분에 역점을 두게 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설문을 통한 정책 수립의 근간을 3가지로 요약한다면 종단 수행체계의 확립, 포교활동 강화, 대사회적 역할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스님은 수행체계의 확립을 위해 종단스님들의 수행생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포교활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포교사의 양성, 포교방법의 개발, 포교활동의 지원책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단의 대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도 복지, 교육프로그램, 관혼상제의 불교 의식화등을 주도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요청은 그다지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님응답자 중 요양소나 양로원을 위한 경우(44.1%)도 열반당(28.5%) 연금(25.1%)에 비해 높았다.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 포교의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북한지역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야 한다는 응답이 43.9%로 높게 나타났으며 북한 사찰의 복원을 위한 접촉의 필요성을 든 응답자도 17.6%로 드러났다.

2백여 가량의 조계종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보통 28.4% 충분 15.4%)을 보였으며 재정확보를 위한 종단 수익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한 응답자는 43.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종단의 재정 및 삼보정재의 관리 방안은 사찰이 독자적으로 하되 중앙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42.3%)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교구본사의 주도적관리(22.3%)와 중앙의 취합관리(24.2%)를 주장한 응답자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 문화재 관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징수

(39.6%)를 하되 불자에게는 받지 않아야 한다(32.9%)는 의견도 높았다. 완전 폐지는 14.1%인 6명이 주장했다.

종도로서 종단에 대해 얼마만큼의 일체감을 갖느냐는 질문에 대해 75.9%가 일체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종단에 대한 종도들의 일체감 인식은 종단 발전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종단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의 마련으로 미래사회 불교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타종단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41%가 차별성과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38.7%가 상호협력 보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점은 종단적 일체감과는 별개로 열린 종단정치의 필요성을 대변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계종단내의 스님들과 재가자가 갖는 타종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컸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연태 기자

입니다. 그리고 ‘신행의 실천’을 통한 불청혁신을 이루려고 합니다. 신행결과 오계실천운동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청년불자들이 올바른 수행관과 불교적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부회장제 도입, 동호회 개설 지구별 독화사업 강화 등을 통해 조직혁신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차기 집행부 운영 관리에 묘안이 있으시다면.

▲특정인에 의해 운영되는 불청이 아니라 회원 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개인적 신행의 고양과 대사회적 대응능력 확대도 불교청년들의 중대한 과제인만큼 이 부분을 충족시킬 생각입니다. 이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군법사들의 연성회의로 구성하려는 (가칭)불교미래연합에도 밑거름이 되리라고 봅니다.

도필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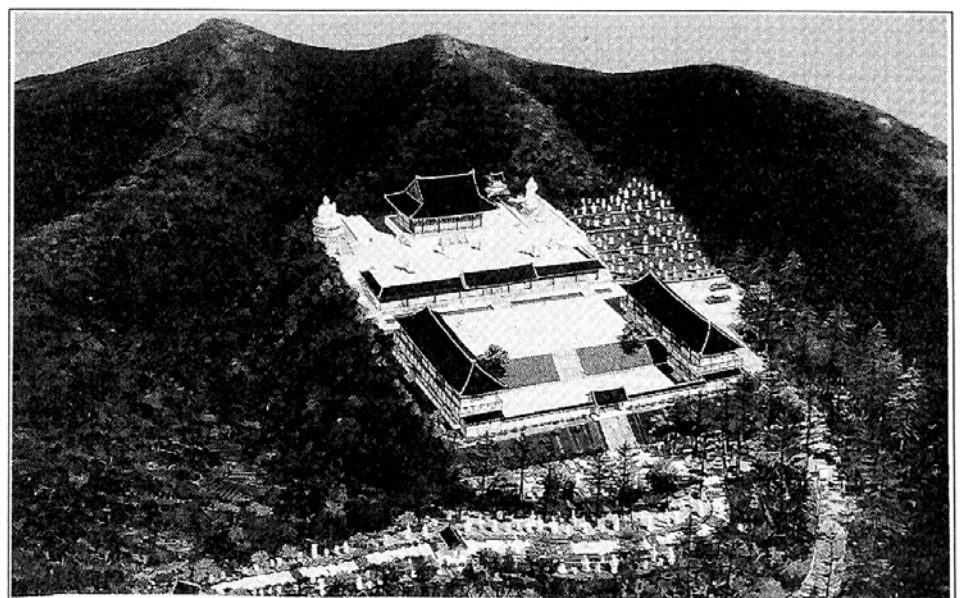
도리산 육지장사에 나투신 지장보살님

도리산 육지장사 건립기공식 및 出世지장보살님 점안법회

생활불교, 포교의 전당 삼보사에서는 14주년을 맞이하여 2000년대를 향한 포교10년 계획을 세우고, 도리산에 현신하신 지장보살님을 모실 육지장사와 불교청소년법당·회관을 건립코저 산자수려한 양주땅 이름도 고운 백석 지장성지 도리산 육지장사 건립 기공식 및 出世지장보살님 점안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코저 하오니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541년(서기 1997) 11월 8일 오전 11시
- 장 소 :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산 128-1
- 전 화 : 02)352-6406, 352-6407, 0351)871-0101, 871-6574

주 지 윤지원 신도회장 홍성걸
거사림회장 박순배 연화회장 차정순
※1차년도 세울건평 1500평



■ 육지장사 조감도 ■